

해외출장보고서
2018.05.29. ~ 06.09.
중국 / 옌청·상하이 ·홍콩·후이저우·선전

해외출장보고서

(한중산업협력단지 현지실태조사 및
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참석)

2018. 6.

박소희(중국산업연구부)

 **KIET** 산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
Economics & Trade

I. 출장개요

1. 출 장 자 : 박소희(중국산업연구부)
2. 출장기간 : 2018.05.29.(화) ~ 2018.06.09.(토) (11박 12일)
3. 출 장 지 : 중국 / 옌청·상하이·홍콩·후이저우·선전
4. 출장목적 : 한중산업협력단지 현지실태조사(기관 방문, 인터뷰, 자료수집 등) 및 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참석

II. 세부일정

일자 (요일)	장소	시간	주요 일정(방문기관, 면담자 등)
05.29 (화)	인천 -옌청	오전	• 한국 인천 출발, 중국 옌청 이동
		오후	• 한중(옌청) 산업단지 계획전시관 참관
05.30 (수)	옌청	오전	• 중국 옌청시 상무국 부국장 등 옌청시 정부 관계자 인터뷰
		오후	• 한중(옌청) 산업단지 방문 및 관리위원회(중국 정부 측) 국장 등 관계자 인터뷰 • 한중(옌청) 산업단지 입주기업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
05.31 (목)	옌청	오전	• 옌청기아자동차(DYK·둥핑위에다·기아)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
		오후	• 옌청현대모비스(장쑤모비스) 방문 및 법인장 등 관계자 인터뷰
06.01 (금)	옌청 -상하이	전일	• 옌청 출발, 상하이 이동

06.02 (토)	상하이	오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하이자유무역구 입주기업 관계자 인터뷰
06.03 (일)	상하이 -홍콩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하이 출발, 홍콩 이동
06.04 (월)	홍콩	오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콩 Kotra 방문 및 관장 인터뷰
06.05 (화)	홍콩	오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방문 및 상무관 인터뷰
06.06 (수)	홍콩 -선전 -후이저우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콩 출발, 선전 도착, 선전 출발, 후이저우 도착(고속버스로 이동) • 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도착 등록
06.07 (목)	후이저우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참석 (한국산업통상자원부-중국 광둥성 정부 공동 주관)
06.08 (금)	후이저우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참관 •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주임 등 관계자 인터뷰
06.09 (토)	후이저우 -선전 -인천	전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이저우 출발, 선전 도착(고속버스로 이동) • 선전 출발, 인천 도착

Ⅲ. 출장 수행내용

1. 한중(엔칭) 산업단지 계획전시관 참관

- 한중(엔칭) 산업단지 소개 영상 관람
- 엔칭시 주력산업 발전역사 및 신산업(빅데이터, 태양광에너지, 미용, 헬스케어 등) 발전현황 설명 청취
- 엔칭국가기술개발구 역사 및 한중산업단지 발전계획 참관

2. 중국 엔칭시 상무국 부국장 등 엔칭시정부 관계자 인터뷰

□ 장쑤성 엔칭

- (현황) 엔칭시는 장쑤성 연해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일대일로 전략과 장쑤연해개발전략 및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계획의 교차점이며 장강삼각주 도시군을 구성하는 26개 도시 중 최북단에 위치
 - 엔칭은 철도, 항공, 고속도로, 항구 및 BRT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편 이용 시 상하이와는 1시간, 베이징과는 2시간 생활권이며 상하이항과는 250해리, 한국 부산항 및 일본 나가사키항과는 460해리의 거리에 위치
 - 엔칭시의 5대 전통산업분야는 △자동차 △기계 △방직 △화학공업 △농산품 가공 산업
 - 엔칭은 장쑤성 최대의 승용차 생산기지로서 한국 기아자동차와 중 국기업인 둥펑 및 위에다 그룹의 3자 합자사인 둥펑위에다기아, 아오신(奥新), 덩다(登达) 자동차 등 완성차

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인 장쑤모비스(한국 현대모비스 장쑤성 법인), 동희엔진, 경신전자, 두원자동차에어컨 등이 위치

3. 한중(옌청) 산업단지 방문 및 관리위원회 국장 등 관계자 인터뷰

□ 한중산업협력단지 전략

- 옌청시의 신산업육성(신에너지·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·빅데이터·스마트단말기·고급 장비산업)에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할 계획
 - 한중(옌청) 산업단지는 △자동차, 자동차 부품 △광전기·태양광 발전 △스마트제조장비 (이상 제조업이자 주도산업) △빅데이터 △문화△ 헬스케어(이상 신산업 및 서비스업이자 선도 산업)등 산업 유치에 주력
 - 옌청시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선정한 시범 스마트 시티로서 향후 신산업 발전과 다원화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한중 산업단지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

□ 지원정책

- 한중(옌청)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옌청시 상무국이 담당하고 한국공업단지가 위치한 옌청기술개발구에서는 구(区)의 정부인 옌청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담당
 - 한중(옌청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기업 간에 영향력 있는 교류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희망

- 한중(엔청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행정플랫폼과 입주 관련 각종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(예. '2330 심사제도개혁'을 실시하여 근무일 기준 2일 내 기업 등록 및 개업, 3일 내 부동산등기권리증 취득, 30일 내 일반 공업 프로젝트 투자건설 시공허가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)

4. 엔청기아자동차(DYK·등평위에다·기아)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

□ 최근의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

○ 환경 관련 법·규제 강화에 대응

- 환경 관련 법·규제가 많아지고 집행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장치 설치에 많은 자금을 투입
- 더불어 2016년에는 20만 위안을 투입하여 환경보호관련 교육을 실시(총 18회)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응

□ 주력 제품 구성, 소재·부품 조달, 인력 채용 등의 현지화

- 모든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SUV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, 중국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중국 전용모델을 생산 판매

□ 진출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활동

- 현지 법인이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한국 본사가 전 사(社)의 혁신 활동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함.

- 2013년부터는 중국 내에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 시장을 겨냥하여 현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현지에 적합한 신차를 개발하는 등 중국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주력

5. 엔칭현대모비스(장쑤모비스)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

□ 최근의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

○ 거래처의 다각화

- 기아자동차의 협력사로 함께 엔칭에 진출하여 기아자동차와의 거래가 총 거래의 약 90%를 차지
- 최근 몇 년간 주 거래처(한국기업의 중국 법인)의 영업실적이 크게 하락했고 이는 협력사인 자동차부품업체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.
- 장기적으로 주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러시아, 북미 등 전 세계로 거래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 중

□ 진출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활동

- 2014년까지는 한국 본사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담당했고 2015년부터는 상하이연구소에서 일부제품의 설계와 시험을 진행하여 현지화에 힘쓰고 있음.

□ 주력 제품 구성, 소재·부품 조달, 인력 채용 등의 현지화

- 전체 2,220명의 종사자 중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(25명)만 한국인이고 대다수 직원(2,195명)은 현지 채용

6. 상하이자유무역구 입주기업 관계자 인터뷰

- 상하이시는 일대일로, 장강경제벨트, 장강삼각주와 같은 국가 및 지역개발발전전략과 더불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, 상하이 국제대도시 건설 등 자체 전략을 실시 중
-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(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)는 2013년 9월 정식 설립되었고 푸둥신구에 위치
 - (범위) 상하이시 와이가오차오보세구역,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, 상하이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역 및 양산항 보세구역 등을 포함
 - (산업분포) ①금융업, 해운업(루자주이 구역) ②제조업(보세구역) ③자동차 및 부품제조, 신에너지(진차오 구역) ④신문출판업, 문화 예술업(엑스포 구역) ⑤바이오의약, 전자정보(장장구역) ⑥스마트제조(린강구역) 등 산업이 각 구역에 분포
 - (교통) 상하이 푸둥국제공항, 푸둥기차역, 상하이항, 양산항 등을 보유
 - 상하이시 대외개방 확대의 상징
- 대표적인 인재유치정책으로 '그린카드'제도가 있음.
 - 2017년 4월부터 시행
 -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국적의 고급 인재와 그 배우자, 미성년 자녀의 영구체류 자격 신청을 허가

7. 홍콩 Kotra 방문 및 관장 인터뷰

- (홍콩의 산업구조 변화) 완구, 의류, 전자 → (덩샤오핑의 개혁 개방) → 광둥성 등지로 제조업 이전 후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체제로 변모
-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과 중국의 위치가 역전
 - (물류)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, 상하이와 부동의 1위이고, 홍콩은 선전과 닝보 등에 이어 세계 5위
 - (기업금융, 외환거래시스템) 홍콩이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해왔으나 상하이와 선전이 역전해나가는 형세
 - (개인금융) 홍콩은 모바일 결제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현금이나 미국/영국식 수표를 사용
 - (비즈니스 전시)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홍콩의 위상이 점차 약화
- (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) 검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 계좌개설이 어렵고, 사무실 임대료, 생활비,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큰 편이며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려움.
- (신흥 전략 산업) 홍콩 전역의 스마트시티화 전략을 발표
 - 특히 홍콩 행정부가 금융과 IT를 접목하여 홍콩을 핀테크 허브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면서 홍콩이 금융, 물류 중심지에서 핀테크 중심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
- (광둥성 도시와의 연계발전) 광둥의 제조업과 홍콩의 현대서비스업을 접목한 발전이 가능

8.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방문 및 상무관 인터뷰

○ 홍콩 산업 현황

- 홍콩 혁신단지, 과학기술센터 등을 건립
- 홍콩은 선전과 록마차우첨단과학혁신단지 설립에 합의
- (홍콩 사이언스 파크) 홍콩 행정부 주도로 설립되었고 외국 기업, 스타트업, 연구소 등을 유치할 계획을 보유
- (홍콩 사이버 포트) 홍콩판 실리콘 밸리로, 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입주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세계적 핀테크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

○ 홍콩은 중국과 달리 구글 사용이 가능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test가 가능

- (중점육성분야) 로봇, 인공지능, 바이오의약, 스마트시티, 핀테크
- (우리 기업의 애로사항) 홍콩 현지의 비싼 생활비, 월세,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

○ 광저우, 마카오, 홍콩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

- (홍콩의 장점) 제도가 선진적이기 때문에 China Risk를 감소시킬 수 있음.

○ 후이저우를 포함하는 광둥성 도시 및 홍콩과의 연계발전이 가능

- 홍콩에서는 연구, 선전에서는 비즈니스, 후이저우에서는 생산을 담당하여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연계 발전 가능

9. 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참석

□ 포럼 프로그램

시간		주요내용
09:00~10:00		대표 축사
10:00~10:10		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공식 출범식
10:15~10:25		휴식
10:25~11:25		기조연설
11:30~13:00		오찬
13:30~15:00		한중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및 '외자 10조' 정책설명회
15:15	~16:45	스마트제조 특별설명회
	~18:15	한중 FTA 정책설명회 및 한중기업 상담회
18:30~20:30		만찬

□ 한중 양국 정부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각 분야 인사가 참석하여 상호 교류

- 중국 상무부 차관, 광둥성 당위원회 간부, 후이저우시 부시장, 후이저우시 상무국, 한중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관계자,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차관보, 주광둥성대한민국총영사관, 광저우 Kotra, 한중기업가협회, 후이저우한인상공회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, 후이저우삼성, 후이저우LG, 후이저우SK(이상 현지 진출 한국기업) 및 TCL 등 중국기업이 참석
- ‘한중산업협력’, ‘외자유치정책’, ‘스마트제조’, ‘한중 FTA 활용법’, ‘새만금’ 등을 주제로 의견 교류

□ ‘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투자 설명 및 외국인 투자 발전 추진에 관한 후이저우시의 정책 조치 설명’ (발표자 : 위진푸 후이저우시 부시장)

- (투자환경)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중국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로 광둥성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중외(中外) 공동 건설 산업단지
 - 후이저우시는 지리적으로 홍콩, 선전과 인접해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교통이 편리
 -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유하여 중국 내에서 수질과 공기 질이 좋은 편에 속함.
 - 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전자정보와 석유화학공업이 주력 산업이며 1,300여 개의 전자정보기업이 입주해있음.
 - 25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해있고 4만 여명이 한국기업에

서 근무 중

- (우대정책) 후이저우시는 최근 <후이저우시 외자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조치(惠州市促进外资发展若干政策措施, 이하 후이저우시 외자 10조)>를 발표
 - <후이저우시 외자 10조>는 △합법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 △외국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 및 사업 확대 장려 △외국 투자기업의 R&D 혁신발전 지원 △기술 개선 및 첨단 설비 도입 장려 △투자 무역의 편리화 수준 제고 △프로젝트 부지 보장 강화 △기업 응자 방식 확대 지원 △인재 지원 강화 △중점 산업단지 지역 외자유치환경 개선 △보장체제 개선

10.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참관

□ 광둥성 후이저우

- (현황) 후이저우시는 광둥성 동남쪽, 주강삼각주의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'21세기 해양 실크로드'의 교두보이자 광둥·홍콩·마카오 대만구(Great Bay Area)를 구성하는 11개 도시 중 하나
 - 후이저우시의 2대 지주 산업은 전자정보와 석유화학
 - 2017년 말 기준 후이저우시에는 삼성전자, LG전자, 네덜란드의 필립스, 중국의 TCL과 BYD(비야디) 등을 포함하여 총 1,300여 개의 전자정보기업이 위치해있어 전 세계 유명 전자기업이 모인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를 형성
 - 다야완(大亚湾) 석유화학구는 중국 국가중점발전 7대 석유화학공업기지 중 하나로 미국과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관련 기업을 유치했고 정유와 에틸렌의 생산규모가 각각 2,200만 톤과 220만 톤 수준

11.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주임 등 관계자 인터뷰

□ 한중산업단지전략

-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는 △첨단스마트제조업 △화학공업 △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△인터넷+ △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△물류 △해양 △문화 △헬스케어 △현대서비스 등 10대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
-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후이저우시 상무국이 총괄하고 한중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통후생태스마트구와 중카이기술개발구 등 6개 구의 관리위원회가 담당
- (우대정책)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△한국기업 신규 프로젝트 입주 △기존 입주(한국)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및 생산 확대 장려 △기존 입주(한국)기업이 한국기업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 지급 △한국기업의 R&D 혁신 지원 △자주적인 지적재산권 발전 장려 △각종 컨설팅 서비스업 지원 △고급 인재의 혁신 창업 영입 등 우대정책 실시

IV. 출장의 성과(또는 시사점)

1.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및 한중산업단지 관계자 인터뷰

□ 장쑤성 옌청시와 광둥성 후이저우시의 경제 및 산업동향 파악

- 중국 내 한중산업단지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옌청시와 후이저우시의 지역적 특징과 주력 산업 및 관련 기업 현황 등을 파악

□ 한중(옌청) 산업단지와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의 외자이용정책 내용 파악

- 한중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중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, 인재지원정책 등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최근 입주 사례 등을 파악

2. 중국 내 한중산업단지 소재 도시 및 한중산업단지 방문

□ 직접 방문을 통해 문헌자료 내용 중 일부 실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

- 옌청, 후이저우시와 한중(옌청) 산업단지 및 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발전 상황을 직접 관찰
 - 해당 과제 원고 작성 시 출장자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3. 중국 진출 기업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

□ 옌청기아자동차 및 옌청현대모비스(장쑤모비스)의 사업 현황 파악

- 방문 기업 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쑤성과 옌청시의 경제발전현황, 지역적 특징, 옌청기아자동차와 장쑤모비스 중국 사업의 전반적 내용 등을 파악

□ 기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

- 총괄, 실무담당자, 생산라인 담당자 등과 동시에 면담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중국 현지 비즈니스 과정 중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현실적인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4. 상하이자유무역구 입주기업 관계자 및 홍콩 Kotra 관장,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상무관 인터뷰

□ 상하이와 홍콩의 경제발전상황 및 관련 지역개발전략 추진현황 이해

- 옌청(장강경제벨트, 장강삼각주 경제권 포함도시)과 후이저우(광둥·홍콩·마카오대만구, 주강삼각주 경제권 포함도시)의 발전방안 구상을 위해 해당 경제권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도시의 발전현황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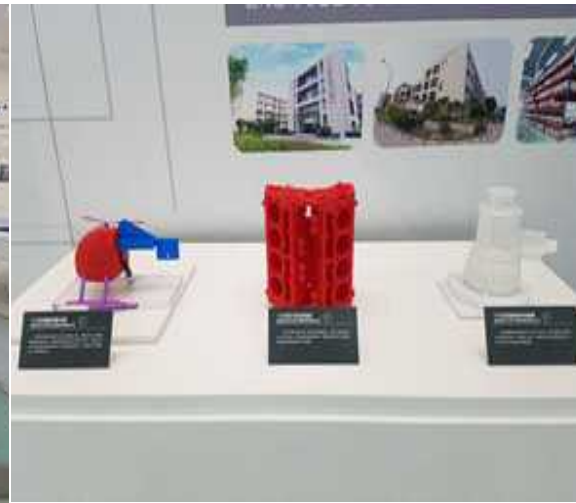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상하이-옌청, 홍콩-후이저우의 연계발전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도시와 한중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방향 및 우리 입주 기업의 효과적인 현지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5. 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 참석

- 한국 정부 관계자, 중국 광둥성 지방정부 관계자, 후이저우 한인상공회, 한중 양국 국책연구기관 연구자, 후이저우삼성, 후이저우LG, 후이저우SK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TCL 등 중국기업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 의견을 교류
- 한중산업단지 발전 전략, 일대일로, 서비스산업, 한중 FTA,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한중 산업단지를 이해하고 한중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됨.

V. 참고자료

<한중(옌청) 산업단지 계획전시관>



<한국공업단지>



<한중(옌청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>



<엔칭 기아자동차 관계자 인터뷰>



<엔칭 장쑤모비스 관계자 인터뷰>



<홍콩 KOTRA 관장 인터뷰>



<제7회 한국-중국(광둥성) 발전포럼>



<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 관리위원회
관계자 인터뷰>

<한중(후이저우) 산업단지>

